

소아 Henoch-Schönlein 신염의 임상경과와 조직학적 특성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조민현 · 김병목 · 고철우 · 구자훈 · 곽정식*

목적 : Henoch-Schönlein 신염 (HS 신염)은 소아 말기 신부전증의 중요한 원인 질환 중에 하나이다. 임상적으로는 발병시 심한 단백뇨, 신증후군, 고혈압 및 질소혈증 등을 동반하거나 신생검 소견상 병변이 심할수록 경과가 나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소견들은 예후 결정인자로서 충분치 못하며 장기추적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지난 10년간 HS 신염으로 입원하여 신생검을 받은 54명을 대상으로 발병시의 임상양상 및 신생검 소견에 따른 환아들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알아보고자 후향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대상 환아는 1993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과에서 HS 신염으로 진단되어 신생검을 받은 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검의 기준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단백뇨 (1일 1 g/m² 이상의 뇨단백 배설), 신증후군 (심한 단백뇨 및 혈청알부민 2.5 g/dL 이하) 및 1년 이상 지속되는 혈뇨 및 단백뇨를 동반한 혈뇨로 하였다. 신생검 소견은 ISKDC (International Study of Kidney Disease in Children)의 분류에 따라 grade I-VI로 분류하였다. 추적 관찰 기간 중 정기적인 요검사, BUN, creatinine 등의 혈청검사 및 Ccr 또는 DTPA scan 등을 이용한 사구체여과율을 측정하였다.

결과 : ISKDC 분류에 따른 조직 소견은 grade I이 5명, grade II가 17명, grade III가 29명, grade VI가 3명이었으며, grade IV, V는 없었다. 고혈압, BUN 및 creatinine의 증가 및 Ccr이 감소된 예는 없었다. 발병초기에 심한 단백뇨를 보인 경우는 모두 21명이었으며, grade II는 17명 중에서 5명 (29%), grade III는 29명 중 16명 (55%)였다. 대상 환아들의 임상경과는 추적 관찰기간이 4년 이하인 45명 중에서 정상뇨 소견 17명 (38%), 현미경적 혈뇨 14명 (31%), 중등도 이하의 단백뇨를 동반한 혈뇨 14명 (31%)이었으며 심한 단백뇨가 지속된 경우는 없었으며, 5년 이상 추적 관찰된 18명에서는 각각 10명 (56%), 1명 (5%), 7명 (39%)이었으며, 심한 단백뇨가 지속된 경우는 한 예도 없었다. 조직학적 소견에 따른 요검사 소견의 변화를 살펴보면, 요검사가 정상화된 경우는 grade II에서 grade III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신생검상에 반월상 유무에 따른 요검사 호전율은 반월상이 있는 경우 정상뇨검사로의 호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단백뇨의 소실은 반월상이 있었던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p < 0.05$).

결론 : 소아에서 HS 신염의 예후는 양호하였다. 조직학적 소견이 심할수록 단백뇨가 동반되거나 심한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반월상의 존재는 단백뇨의 소실을 늦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아에서 신기능의 이상을 동반하지 않은 가벼운 HS 신염의 경우에도 조직학적 소견은 임상경과관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